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준비 KWMMC 연차총회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려 대표의장에 한기홍 목사가 지명됐다.

KWMMC 연차총회 성료

대표의장 한기홍 목사 지명 LA 한인세계선교대회 본격 준비

KWMC(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제28차 연차총회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연차총회 최대의 주제는 내년으로 다가온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준비다. 4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는 1988년 처음 시작된 이래 늘 시카고 휘튼대학교가 개최지였다. 그러나 2016년 6월 제8차 대회는 LA 인근 아주사퍼시픽대

학교에서 열린다. 고석희 사무총장은 “전 미주 4,300개 한인교회 가운데 절반이 서부에 위치하는데 그동안 행사가 중서부와 동부 중심으로 열렸기 때문에 서부 지역 한인교회들의 선교적 요청에 응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대회에 참석하게 될 선교사들도 새로운 개최지로 LA를 긍정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처음으로 행사 장소가 변경되는 만큼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으며 이 대회를 주도적으로 이끌 대표의장에 한기홍 목사가 지명됐다. 이는

한인세계선교대회 개최지가 LA로 변경되면서 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대표의장이 LA 지역 목회자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기홍 목사는 “대표의장으로 임기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나타내며 미국과 전세계 각처에 다시 한 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자”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각처의 현장 선교사들도 참여해 실제 선교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했다. 김준형 기자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남가주교협 사상 초유 공천위의 회장 추천 부결
총회는 11월 2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중앙루터교회에서

좌시도 묵인도 죄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악이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협(목회자), 아니 크리스천이라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곧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존재 자체가 악이다. 남가주교협이 현 수석부회장의 차기 회장 공천 심사를 두 번씩이나 부결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그 부결 결과가 총회 개최조차 불가능하게 했다는 데 있다. 사랑과 섬김의 자리가 무색해졌다. 만약, 교계가 이해타산에 따라 합종연횡한다면 세상의 당파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과 무릎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mammon의 노예가 되어서 안 될 일이다. 적어도 양을 쳐야 하는 목자라면 말이다. 적어도 시대의 등불이 되고 빛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목

회 지도자라면 말이다. 복지부동, 울 안의 믿음으로 성역화하는 것도 악이다. 책임에 참여한 자,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 그리고 이 난국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하실만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연합해야 한다.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용사가 돼야 할 때다. 우리 모두 ‘그 한사람’의 기드온 용사가 돼야 할 때다. 대적해야 할 외부 세력이 너무도 거세게 밀려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 개최될 총회에 모든 총대들이 참여해 신성한 한 표 행사를 해주길 기대 한다. 공천위원회가 오는 9일 다시 추천심사에 들어간다. 세상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되어 철저한 다림줄 역할을 행사하길 바란다. 모든 총대들이 동의할만한 투명한 심사절차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남가주교협의 위상이 새롭게 회복되어 지역복음화에 앞장서길 간절히 바란다. 이영민 기자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담임목사 위임”

강영석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돼

자신이 가르치던 교회 유초등부 학생이 52년이 흘러 후임목사로 왔다. 11월 1일 성화장로교회의 강영석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이동진 목사가 새 담임목사로 위임 받았다. 1968년 당시 전도사였던 강목사는 창신교회에서 유초등부를 맡고 있었고 이 때 어린이 이동진을 만나게 된다. 이후 강목사는 미국으로 유학과 남가주신학교, 칼빈신학교 등에서 공부하고 그랜드래피즈한인교회, 헤브론교회를 거쳐 성화교회에서 목회해 왔다. 이동진 목사는 대학 졸업 후 송실중학

교에서 국어교사를 하다가 극동방송 공채에 합격하면서 방송인의 길로 들어왔고 1995년 도미해 강목사를 다시 만나게 됐다. 그가 신학공부를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간 이가 바로 강영석 목사다. 강목사를 도와 9년간 성화교회를 섬긴 이목사는 강목사의 뒤를 이어 담임목사가 됐다. 원로목사로 추대된 강영석 목사는 “수고하며 기도한 성화교회 식구들에게, 그 사랑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며 [관련기사 2면에 계속]

“성경의 이민자로부터 배우는 거룩한 소명, 꿈, 기도의 능력”

미주성결남서부지방회 ...홀리 리바이벌 집회 개최

“이상하다.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구실을 찾기 시작한다.” 기독교미주성결교회 남서부지방회가 3일에 걸쳐 개최한 2015 홀리 리바이벌 ‘거룩한 예수 세대’ 집회에 강사로 나선 강준민 목사가 말했다. 강목사는 10월 30일에는 사우스

베이선교회에서 ‘거룩한 소명의 능력’, 31일에는 임마누엘교회에서 ‘거룩한 꿈의 능력’, 11월 1일에는 유니온교회에서 ‘거룩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매일 저녁 메시지를 전했다. 성경 속에 나온 대표적 이민자인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의 생애를 하루씩 조명하는 식이었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강사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

나라정비 타이어 데리점
 나라이터먼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계발·토렌스, 엘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USA Tel: (949) 329-8222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Email: shelby.moon65@gmail.com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www.Mylivydream.com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증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 목회학박사(D.Min.)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1일)

> 한영이증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증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동부사랑의교회 감격의 임직감사예배”

개척 8년을 넘어선 동부사랑의교회가 강정환 장로 등 35명의 일꾼을 세우고 10월 25일(주일) 오후에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남가주사랑의교회가 파송한 박승규 목사와 33가정이 LA 동부 지역에 개척을 시작해 4년 즈음에 성도 1천 명을 넘어서고 교회 빌딩을 구매하는 등 외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동시에 모든 성도가 동고동락하며 제자훈련과 말씀 및 기도 운동으로 내실을 다져온 지난 8년이였다.

이날은 장로 1명, 안수집사 7명, 시무권사 23명, 협동권사 2명, 명예권사 2명이 임직했다. 이중 장로

와 안수집사는 안수를 받고 임직패를 전달받았으며 권사들은 임직패를 받았다. 이 교회가 속한 교단 미국장로회(PCA)는 헌법에서 직분을 목사(강도장로)와 치리장로, 집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직분은 남성만이 안수 받고 임직할 수 있다. 교단 내 한인교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돼 여성 집사나 권사를 당회가 자체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함존직이 아니며 안수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이날 특별히 김혜자 명예권사의 임직식도 있었다. 임직에 앞서 세상을 떠난 김 권사 대신 남편 김용규 집사가 임직패를 받았



임직자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다.

는데, 임직패를 수여하던 박 목사는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 교회는 그동안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온 김혜자 집사에게 명예권사 직

분을 주어 그의 헌신에 보답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남가주사랑의교회 노창수 목사, 텍스트사랑의교회 김일영 목사, 열반인사랑의교회

박현식 목사 등 사랑의교회 목회자들이 임직 식순과 안수를 맡았다. 설교는 고건주 목사, 축사는 박희민 목사가 각각 전했다. 김준형 기자

“예성미주총회장 최한오·부총회장 최강인 목사”선출

제13차 총회 열려 ... 본국 총회장과 미주 기성 측도 축하



미주 예성총회가 남가주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에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제13차 총회에서 총회장에 최한오 목사(미국 서부, 나성성교회), 부총회장에 최강인 목사(미국 동부, 운광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미주 예성총회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LA 한인타운에 소재한 남가주새언약교회(강양규 목사)에서 “함께 가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개회 예배에서는 본국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송덕준 총회장이 “사명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초기 성결교회의 존경받는

원로인故 김응조 목사의 말을 인용해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할 일은 눈물로 강대상을 적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눈물로 강대상을 적셔서 눈물의 목회자가 되라. 또한 이민목회가 어느 목회보다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성령충만한 목회자가 되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토론도주님의 교회에서 목사 임직을 청원한 김형민 전도사가 목사로 안수받았다.

또 총무에는 양승민 목사(캐나다 동부, 토론토영양교회), 서기에는 오명석 목사(미국 동부, 샘솟는교회), 회계에는 이윤수 목사(미국 서부, 한국인선교회 미주대표)가 각각 선출되었다.

이번 총회에는 본국 예성의 송덕준 총회장과 함께 미주성결교회(기성측)의 조종곤 총회장도 참석해 축하하면서 예성과 기성의 화목을 과시하기도 했다. 총회에 앞서 12차 총회장이었던 장동신 목사가 한 회기를 함께 한 지방회장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준형 기자

“2015홀리리바이벌 집회”

[1면으로부터 계속]특별히 둘째 날에는 고난 가운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룬 요셉의 삶을 통해 강한 도전을 던졌다. 그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곳에서 최선을 다했고, 모든 환경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고, 겸손을 지켰으며 가는 곳마다 타인을 섬겼다. 고난의 기간 동안 미래를 준비했다”면서 이민교회 목회자와 성도들도 고난을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과 은혜의 기회로 삼으라 권면했다. 이날 설교에서는 특별히 그가 이민목회를 처음 시작하며 개척했던 로고스교회에서의 경험, 분열과 갈등 속에서 아픔을 경험했던 동양선교회에서의 경험을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큰 감동을 주었다.

회들이 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 5년 안에 7천 명 선교사들의 후원이 끊기며 10년 안에 청년들의 감소와 함께 교회 재정도 급감한다”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홀리 리바이벌을 기획한 남서부지방회 안창기 지방회장은 “올해 하나님의 부흥을 향한 열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 홀리 리바이벌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길, 이 땅에 거룩한 예수 세대가 일어나길 간구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남서부지방회는 지난 4번의 집회를 통해 헌금을 모아 2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2곳의 교회를 후원하는 등 부흥에 헌신하고 있다.

강 목사는 “한 조사에 따르면, 교

김준형 기자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담임목사 위임”



(왼쪽)강영석 원로목사와 (오른쪽)이동진 담임목사

[1면으로부터 계속]“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했다.

또 “후임인 이동진 목사를 존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동진 목사는 “지금까지 성화장로교회를 통해 역사해 오신 하나님을 믿는다. 에벤에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며 그 분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다.

장로회(KAPC) 남가주노회 위임국장 권영국 목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동진 목사의 고등학생 시절 담담 전도사였던 임동하 목사가 ‘밀레도에서 만난 사람들(행20:17-35)’이란 제목으로 설교했고 윤성원 목사(오렌지한민교회)가 축도했다. 권 목사가 위임식을 집례한 후, 남가주노회 서기인 김관중 목사가 권면, 부회록 서기인 이황영 목사가 축사했다. 김준형 기자



오픈뱅크는 수익금 10% 사회환원을 통해 커뮤니티를 섬기고 있다.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새로운 사회 환원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오픈뱅크가 올해 좀 더 변화

된 모습으로 커뮤니티의 어려운 곳을 찾아 간다. 오픈뱅크는 매년 오픈청지기재단을 통해 은행 수익의


오픈청지기재단 11월 30일까지 비영리단체 신청접수

10%를 사회에 환원한다. 올해도 11월 30일까지 여러 단체의 신청을 받는다. 오픈청지기프로그램의 지원 프로그램 선정 작업은 내년 2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지원금 전달은 예전과 같이 3월 말에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는 213-593-4885로 하면 되고 참조 웹사이트는 www.openstewardship.com이다.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담임목사저

“오늘을 만족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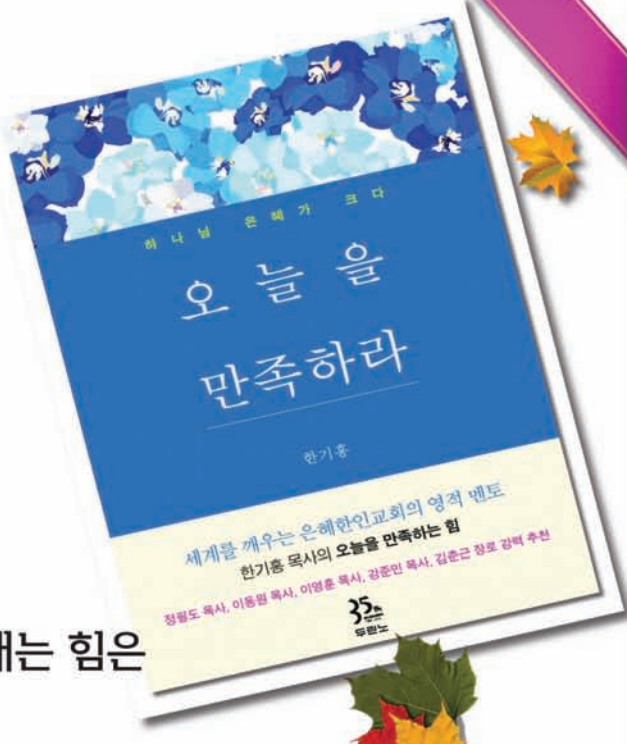
**모래성 같은 인생
만만치 않은 오늘**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힘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입니다.**

오늘의 환란과 시련과 고난 속에도 행복한 삶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가난한 유학생에서 5천 성도의 멘토가 되기까지, 그는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회복하는 비결을 이 책에 담았다.

신앙생활의 감동과 은혜를 잊었거나,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그럼에도 기쁨으로 오늘을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

판매처: 미주 두란노서원, JOY기독교백화점, 은혜한인교회 서점 외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중



세계를 깨우는 은혜한인교회의 영적 멘토
한기홍 목사의 오늘을 만족하는 힘

정필도 목사, 이동진 목사, 이영호 목사, 김준민 목사, 김은근 장로 강력 추천

35주년
명란노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지난달 하순 LA 한인타운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할리웃 태글리 인컬처럴센터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뜻깊은 기금모금행사가 열렸다. 버려지는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 서울 시흥동에서 베이비박스(Baby Box)를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공동체(대표 이종락 목사)를 돕기 위해 한국입양홍보회(MPAK·대표 스티브 모리슨 장로)가 마련한 후원의 밤이었다. 입양어린이합창단과 진 김양의 음악이 가을밤을 물들인 이 행사에서는 300여 참석자들이 10만여 달러를 약정했다. 베이비박스 스토리는 LA타임스 등에 보도된 뒤 브라이언 아이비 감독에 의해 '드랍박스(Drop Box)라는 이름의 다큐 영화로 제작돼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후원의 밤 기조연설과 교회 간증을 통해 눈 이종락 목사의 눈물겨운 생명 살리기 노력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난달 하순 할리웃 지역에서 열린 베이비박스 후원의 밤 행사에서 입양어린이합창단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고 있다.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세상에 없습니다”

■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주사랑공동체 대표 이종락 목사

-자신을 소개한다면
 “경남 거창 출신으로 노래를 좋아하고 까부는 성격에 가끔 싸우기도 하던 사람이었다. 20대에 상경해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날 회사 야유회에서 술을 먹고 사장을 두드려 쳤다. 그 일로 실직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취직했다. 그 회사에서 출근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성 어거스틴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 얼마 후 과장으로부터 예배에서 대표기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예수도 안 믿던 나로서는 기막힌 노릇이었다. 기도문을 쓰고 찢기를 며칠을 반복했다. 정해진 날이 다가와 예배시간이 되자 가슴이 마구 뛰었다. 기도순서가 되어 일어섰는데 종이의 끝씨가 하나도 안 보였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니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다. 동료의 귀

영아 두고갈 수 있는 베이비 박스 통해 5년동안 800명 넘는 소중한 생명 살려 “미주 한인 적극적인 후원·입양 기대”

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 뒤 앉아서 계속 울었다. 그런데 동료들이 다가와 눈물의 기도 정말 은혜로웠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완악한 내 마음을 만져 주셨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데 바로 그 주간에 사고가 터졌다. 성격이 과격해 직원과 또 싸움이 붙었던 것이다. 상대가 병원에 가는 바람에 시말서를 내리 회장실로 들어갔다. 회장님은 읽어 보신 후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날 사람이다. 예수를 믿으면 크게 될 것 같다’고 하셨다. 그래서 믿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회장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많은 사람의 위로자가 되게 해 달라는 축복기도였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첫날부터 은혜를 받았다. 예배시간 내내 울었다. 이천석 목사의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성령 충만도 체험했다.”



주사랑공동체 대표 이종락 목사.

조치를 다해도 효험이 없었다. 아들을 살려 달라고 병원에서 처절하게 기도했다. 의사가 수차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으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났다. 아들이 너무 오래 숨이 끊겼기 때문에 뇌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으로 살 것이라고 의사는 말했다. 삼각산 등에서 눈물로 간구했다. 주님께서 가슴을 뜨겁게 해 주셔서 엄청난 시련을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겼다. 병실에서 늘 기도하자 주변의 환자 부모들이 기도를 부탁해 왔다. 나중에는 병실 전체가 기도하게 됐다. 14년간 병원생활을 하면서 집사였지만 ‘원목’처럼 살았다.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주사랑공동체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병원에서 82세 할머니가 부탁하셨다. 나 죽으면 손녀딸을 맡아달라고, 우리 아들과 마찬가지로 전신마비로 온몸에 호스를 끼고 누워 있는 상희라는 아이였다. 아무도 말을 사람이 없었다. 할머니를 예수 믿게 하려고 허락했다. 할머니가 죽은 후 상희가 우리 집에 왔다. 아내에게는 미리 말도 못했다. 하

지만 아내는 아이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장애인 공동체의 시작이었다. 그 뒤로 소식을 듣고 장애아들이 하나둘씩 왔다. 장애로 태어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었다.”

-베이비박스를 만들게 된 계기는
 “2007년 바람 부는 추운 봄날, 새벽 3시20분에 전화가 걸려왔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를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나가 보니 생선박스에 아이가 있고 고양이가 주변을 맴돌고 있더라. 저 체온증으로 싸늘하게 식어가는 갓난아이를 안고 계단을 올라 오는데 ‘자칫하면 우리 집 앞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되겠구나.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장치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09년 12월에 담장을 뚫어 공간을 만들었다. 아기를 넣으면 벨이 울리도록 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게 해 달라고, 이박스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만 주님께서 이 박스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3개월이 후 첫 아이가 들어왔다.”

-그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 아이가 들어오던 날 주사랑공동체에 있던 5명이 말도 못하고 울었다.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모세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생명 박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드렸다. 그 아이는 목사님 가정에 입양돼 잘 자라고 있다. 2012년 개정된 입양특별법으로 10대가 많은 미혼모의 출생신고와 입양 보내기가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무려 9~10배가 늘었다. 지난 5년간 베이비박스를 통해 821명의 어린 생명이 보호 받았다. 베이비박스는 낙태와 영아유기를 막는 도피처가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무 것도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미주 한인들에게 하고픈 말은
 “누구를 통해, 어떤 경로로 태어났든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하나도 없다. 법도, 제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다. 주사랑공동체는 장애인 공동생활 외에도 낙태 반대운동, 미혼모 상담 및 지원, 가족치유 상담 등을 하고 있다. 미주 한인들의 많은 후원과 입양을 바란다.”

문의: (562)505-0695, JSRcommunity.com
 김장섭 전문위원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할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할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턱선을 올려 젊음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각종보험·여행자보험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충신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 창립예배를 마친 회원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말씀이 삶으로 피어나는 충신 전통 이어가자”

충신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 창립총회...회장 최순길 목사 추대

충신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가 26일 오전 11시 엘에이 한인타운 만리장성에서 창립예배를 갖고 제 1대 회장으로 최순길 목사를 추대했다.

최순길 목사는 ‘조상들을 본받아 야 할 터인데’(속1:1-4) 주제의 말씀 선포를 통해 “명문가 후손은 명문가 후손답다는 말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훌륭한 후손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자신부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럴 때 후배 동

문들이 닳고 싶어 하는 선배가 되어 명문 충신의 전통을 이어가지 않겠는가. 충신 후배들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도 존경받는 충신 선배들이 되자”고 했다.

이어 제임스 안 회장(남가주한인회), 박효우 목사(남가주교회협의회 중경회장), 송충석 선교사(KWMF 대표회장)가 각각 축사를 전했다. 이종찬 목사(기독신문 주필)의 축하 메시지와 오정호 목사(충신대학교 총동문회장)의 축하 메시지는 과부한 목사(남가주교회협의회 중경회장)와 김경일 목사가 각각 대독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한 이 목사와 오 목사는 축하 화

한을 보내 총동문회 창립 축하를 대신했다. 이태환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중경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2부 창립총회가 이어졌다.

이날 선출된 최종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최순길 목사 △부회장: 김광삼 목사, 광견섭 목사, 양경선 목사, 광부한 목사, 김경일 목사, 김영일 목사, 지윤성 목사 △총무: 안기정 목사 △부총무: 백현 목사 △서기: 임성수 목사 △회계: 장병노 목사 △감사: 서오석 목사, 신용채 목사

이영인 기자



한미기독교교회관 건립을 위한 일일식당이 11월 2일 오전 10시경 시작됐다.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한미기독교교회관 관계자들이 일일식당 시작에 앞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한미기독교교회관 건립 위한 일일식당 열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를 중심으로 한미기독교교회관 건립을 위한 일일식당이 LA 한인타운 버몬트 길과 11가 인근 ‘미라클’에서 2일과 3일 양일간 열렸다. 주최 측은 1만5천 달러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행사 전 이미 8,500 달러의 기금이 확보된 상태라고 백지영 목사회장은 밝혔다.

한미기독교교회관을 건립하고자 일일식당 행사를 통해 모금해 왔으며 2013년 2월 비영리단체 한미기독교교회관(Korean American Christian Center, 대표 이윤영 목사)을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등록하고 계좌를 개설해 당시까지 모금된 2만3천 달러를 예치해 놓은 상태다.

수년 전부터 남가주한인목사회

김준형 기자

조이 홈커밍웨일리 워십

양택호 일본 선교사 홈커밍 환영 예배가 열린다.

- *일시: 11월 8일(주일)
- *시간: 오전 11시
- *장소: 조이피플교회
- *주소: 4321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 *문의: 714-944-7112

연합 설교 페스티벌

미주장로신학대학교 주관 제1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이 열린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서 장차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현장에서 헌신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설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일시: 11월 7일(토)
- *시간: 오전 9시-오후 12시 30
- *장소: 나성영락교회 분당
- *주소: 1721 N Broadway, LA, CA 90031
- *주최: 7개 (신학)대학교
- *참가대상: 인준받은 학교의 신학생들
- *문의: 562-926-1023 (미주장신 행정처장 구경모 교수)



10월 31일 SON미니스트리 사무실에서 선교지에 사랑의 약 보내기 운동이 발족됐다.

“오지 선교사에겐 비타민C 한 병도 귀해”

SON미니스트리...사랑의 약보내기 운동 발족

SON미니스트리가 선교사의 건강을 위한 “사랑의 약 보내기” 운동을 공식 발족했다. 31일 세리토스에 있는 SON 사무실에는 약 10여 명의 선교사와 20여 명의 후원자가 모여 이 운동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SON의 대표 김정한 선교사는 “수십 년간 오지에서 선교하느라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못한 선교사가 너무 많다. 비타민C 한 병이 그들의 선교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전 세계 한인 선교사의 연합체인 KWMF의 안성원 사무총장은 이날 모임에서 “전방 선교사만큼 후방 선교사도 중요하다. 약 보내기 운동을 통해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자리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의약품

이 선교사의 건강은 물론 선교 자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간증했다. 이날은 의약계에서 일하는 평신도 지도자들도 참여해 후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SON은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 선교사들로부터 의약품에 대한 필요를 수집하고 현금이나 헌물 형식으로 의약품을 구해 보내 줄 계획이다.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처방전을 작성하고 약사가 약을 처방한다.

현재 SON은 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이며 약 처방에 도움을 줄 의사와 약사는 물론 매달 10달러를 후원할 정기 후원자도 모집하고 있다. 문의) 714-350-6957

김준형 기자



이충남·방영자 부부목사(앞줄 맨 오른쪽) 등 사회봉사상 수상자들과 LA기윤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A기윤실 ‘나눔과 섬김의 삶’ 격려”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LA기윤실)은 지난달 30일 사회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시상식에서는 ▲이충남·방영자 부부목사 ▲LA 소재 세계선교교회(담임 최윤형 목사) ▲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 등이 지역사회와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와 개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LA기윤실 사회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장섭 기자

기독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제 46차

임원 입후보 안내 및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 총회일시: 2015년 11월 23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중앙루터교회(홍영환 중경회장 사무) 987 S. Gramercy Pl. Los Angeles, CA 90019 전화/ 213-384-2295
- 등록비: \$20
- 문의: 이현욱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전화/ 626-318-6611 E-mail/ Lhw7339@gmail.com

이 후보자격 (협의회 정관 제12조)

02 제출서류

03 제출기한

04 공천위원회 모임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추천 및 신청

- 1) 회장: 목회경력 10년 이상, 남가주 목회 3년 이상된 담임목회자
- 2) 수석 부회장: 차기 회기에 회장 자격이 있는 자
- 3) 부회장: 목회 경력 5년 이상, 남가주 목회 3년 이상된 목회자 및 현재 시무장으로 및 시무권사로서 담임목사의 추천이 있는 자

1) 이력서 2) 교단추천서 3) 목사안수증명서
4) 교회주보 5) 발전기금 6) 담임목사 추천서(장로/권사)
+ 발전기금(Cashier's Check)
회장: \$5,000 / 수석부회장: \$3,000 / 부회장: \$1,000

+ 2015년 11월 9일(월) 까지
+ 제출 주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 문의: 공천위원회 서기 백중윤 목사 (818-825-6354)

+ 일시: 2015년 11월 9일 (월요일 오후 5시)
+ 장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 회장: 최혁 목사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

역대하 20:5-2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 기도

남유다 여호사밧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치고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마온 사람들은 예서의 후손인 에돔을 말합니다. 그들은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에 남유다는 18장에 나오는 길르앗라못 전투의 실패로 인해 국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나라 연합군이 전쟁을 하러 올라오니 여호사밧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눈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신안인이었기에 가장 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도 반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각 성읍에서 나와 성전 뜰에서 기도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감에 전인격적으로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와 전 새 뜰에 모여 있는 회중들에게 외칩니다. 6-12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6절은 온 천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9절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하나님 되심과 환난 가운데 간구할 때에 구원해 주시기로 한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10-12절은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의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런 고백은 잠언 3장 5-6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을 모셨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겠다고 덤비는 일이 많습니다. 참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세 나

라 연합군이 국력이 약해진 남유다를 쳐들어와 전쟁할 때에 여호사밧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2.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호와와 신이 회중 가운데 레위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는 아삽 자손입니다. 아삽자손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악기와 찬양으로 예배 분위기를 돕는 자들입니다. 15-17절은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하여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야하시엘은 갑자기 성령에 점령당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나라 연합군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에 참여하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18-20절까지 등장합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은 20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장에 있었던 길르앗라못 전투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연합하여 길르앗라못이라는 지역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경고하셨지만, 여호사밧은 이를 무시하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때에 여호사밧의 마음속에는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한 것에 대한 뼈아픈 교훈이 새겨졌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귀담아 들을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실패를 거울삼아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세워서 대언하게 하신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가는 곳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실패의 교훈을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3. 여호와와의 구원을 경험함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21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하시엘의 성가대원들에게 성가대 가운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에 싸울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기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흡족해 하십니다. 그 결과로 22-24절에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십니다.

22절에 나오는 복병은 남유다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늘 군대입니다. 복병이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길목에 두었다가 세 나라로 서로 전쟁하게 만듭니다. 복병이 전쟁을 시키니깐 이상하게도 암몬과 모압 두 군대가 에돔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으로 함께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는데, 눈이 뒤집혀서 에돔 군대를 남유다 군대로 보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군대는 전멸하게 됩니다.

이제 암몬과 모압 군대만 남았습니다. 남

은 두 국가 간에 서로 죽이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요, 전술입니다. 이로 인해 약속하신 대로 남유다 백성들은 그저 찬양하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와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4절에 세 나라 연합군 중에 살아서 돌아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하였는데, 그것이 너무나 많아서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전쟁을 위해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구원해 주심을 보았고 큰 재물까지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도처에서 공격해 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때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 앞에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기도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목자를 통해 대언케 하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맞볼 뿐 아니라, 형통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AM1310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한국 엘림 장애인 선교회 LA 선교 집회

"30여년을 장애인 영혼 구령사역에 헌신한 고창수 목사의 생생한 간증"



강사 고창수 목사 김천환 선교목사 김민경 선교사 카이로스 울동팀
한국 엘림 장애인 선교회 사랑의 띠 선교회 사무총장



집회 일정

날짜	2015년 11월 12일(목)	2015년 11월 15일(일)	2015년 11월 22일(일)
시간	오후 7:30	오전 11:00	오전 11:00
장소	LA 사랑의띠 선교교회	새 생명 선교교회(글렌데일)	갈보리 선교교회(가든 그로브)
연락처	(213)736-6625	(818)539-0123	(808)454-7686

저녁 식사는 6시 15분 부터 준비 됩니다
주차는 건물 뒷편에 있으며 7시 이후에는 건물 좌우 도로에 하셔도 됩니다

장소: 한국 엘림 장애인 선교회 LA 지부(사랑의띠 선교교회)
1300 W Olympic Blvd. #200, Los Angeles, CA 90015



집회 문의: (213)736-6625 LA 지부장 김천환 선교목사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다민족연합기도대회

HEAL 이 땅을 고쳐주소서! OUR LAND



11월 29일(주일) 오후 4:30-8:30

현장중보기도모임: 오후 2:30-4:00 (연락처: 김경일 목사 213-507-3875)

장소: 애나하임 컨벤션센터 (디즈니랜드 옆)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비상한 회개기도를 통한 강력한 부흥만이 살길입니다.*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과 여러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 비상하게 회개하여 부르짖을 때입니다.
미국사에 보면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교회들이 역대하 7:14의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그 때마다 하나님은 부흥을 보내 주셔서 나라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한인크리스천들이여,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모세의 심장으로
에스더의 각오로 마음을 찢으며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십시오.



장소: Anaheim Convention Center
800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주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JAMA, OC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 OC목사회, OC원로목사회, OC여성목사회, OC평신도연합회, OC장로협의회,
남가주 각지역 교협 또는 목사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KCCC, CMF, 미주복음방송,
Fire Crusade, HYM, Jesusholic Movement, 미스바철야기도회

문의: 323-933-4055, 714-336-4378, 714-615-9191



각 교회로 포스터, 전단, 영상 설교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1/8일이나 11/15일 주일을 나라의 위기를 위한 기도주일로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후원: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천위클리,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투데이, 기독일보, 국민일보
CGN TV, CTS, 미주복음방송, CBS기독교FM방송, 미주기독교방송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 역대하 7:14



2일 기자회견에서 한기홍 목사(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한인교회 및 타인종 교계 리더들이 29일 열리는 다민족 연합기도대회의 성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비밀 발견하길”

■ 기독일보 초대석 ‘오늘을 만족하라’ 출간한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인생은 참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인생도 많은 소유를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존재론적인 만족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풀러튼 소재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가 자신의 신앙 스토리와 행복한 삶으로 가는 오묘한 깨달음을 담은 첫 저서 ‘오늘을 만족하라’(두란노 간)를 최근 냈다.

40일 금식-기도로 건축한 성전 등 인생의 참된 만족으로 가는 길 소개

29일 다민족 연합기도대회 앞두고 대표대회장 중책 맡아 준비에 분주

샌디에고 갈보리장로교회를 맡아 70명의 교인을 1,000여 명으로 부흥시킨 뒤 2004년부터 한인 대형교회중 하나인 은혜한인교회의 2대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한 목사는 지난달 30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형교회이지만 성장하는 교회는 늘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나는 행복하다. 가식이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그리 항상 평안하냐고 묻는다. 그 행복의 비결을 나누고 싶었다’고 저술 배경을 밝혔다.

이어 “목회자든 평신도든 이민생활은 다 어렵기 마련이다”고 단정하고 “누구든 오늘을 만족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내게도 많은 고난과 시험, 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부름 받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깨달았기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책을 쓰려고 했는데 부끄럽고 자신도 없고 자기 자랑 같아서 도무지 안 되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정리되어 너무 쉽게 쓸 수 있었다”는 그는 “얕은 자리에서 단숨에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이 책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에 대해 적었다”고 소개했다.



‘오늘을 만족하라’를 출간한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지난해 7월부터 한 해 동안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KCCA) 회장을 맡아 JAMA와 더불어 미국 내 7개 도시를 돌며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성회를 개최했던 그는 자신의 40일 금식기도 경험과 선교 최우선 정책 때문에 재정적으로 수차례 벼랑 끝에 몰리면서도 수용인원 2,500명의 대예배실과 24시간 오픈하는 은혜세계기도센터가 포함된 예배당을 기도의 능력으로 건축한 일 등도 책을 통해 나눈다.

지구촌교회 원로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는 “한 목사님의 순례 여정은 감동과 은혜의 처방이 될 것이다. 감동을 모르고 은혜를 잊고 있는 이들은 이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는 “이민목회는 쉽지 않은데 한 목사님은 늘 웃음과 평온함을 잃지 않는다. 이 책에서 나는 그 비결을 알았다. 모든 독자가 마지막 책장을 덮을 때 저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지난달 하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판감사예배에서 한 목사는 “책의 수익금은 은퇴 선교사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선교관을 짓는 일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책에는 쓰지 않았으나 그는 지난 5월 7일 전국 4만3,000곳에서 거행된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워싱턴 DC의 캐논하우스 오피스빌딩(연방하원의원 사무실)에서 열렸던 기도회에 대표기도자로 초대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담대한 간구를 올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셔서 자녀들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규례를 무시하고 동성애를 허용하는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가 보호되고 미국인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달라”는 말로 이어졌다.

한 목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6월의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앞두고 의견 대립이 첨예하던 상황이었다. 전국적으로 생중계되는 기도회에서 ‘동성결혼을 죄’라고 선포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았다. 그 내용은 후에 AP통신에도 보도되었다”면서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로 그 때를 위해 나를 미국에 보내시고 훈련시켰다는 생각에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요즘은 2세 사역자들을 키우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1세들의 헌신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의 열매를 2세들이 함께 가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한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1세와 2세들의 강점이 잘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낳아야 한인 기독교계가 비전이 있다”고 강조한다. 은혜봉사센터를 든든히 세워나가면서 장학재단 설립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한 목사는 미기총, JAMA, OC교회협의회 등이 오는 29일(주일) 오후 4시30분-8시30분 애나하임 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주최하는 ‘다민족 연합기도대회’의 대표대회장을 맡아 미국의 회개와 변화를 위한 기도의 불씨를 모으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백인, 라티노, 흑인 목회자들이 참석한 2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미국이 잘 돼야 한다.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보수적인 한국에서도 동성애자들이 배주에 축제를 벌이는 등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다. 미국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는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는 말로 모든 크리스천들의 참석을 부탁했다.

기도대회 문의 (310)592-0486, (562)682-3722, national@JAMAGlobal.com

김장섭 전문위원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상담학 석사: 신학/목회학/상담학 박사: 신학/상담학</p> <p>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징: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솔로몬대학교 말씀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리아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p> <p>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p>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p> <p>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기독교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p>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진 박사, 이사장: 김광민 목사</p> <p>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us / aeuimaster@gmail.com</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김성민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최승욱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 베이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u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종욱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F.(310)530-8400/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정영희 담임목사
드림교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월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곽택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비전채플 Vision Chapel
최혁 담임목사
주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케네디 코치.

美 연방 국회의원 47명 기도하는 풋볼 코치 지지

47명의 연방의회 의원들이 브레머튼 고등학교의 미식축구 코치 조 케네디 씨가 경기 후 50야드 지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워싱턴 주 브레머튼교육구로 지난 10월 27일 보냈다. 해당 교육구는 최근 이 코치가 교육구의 명령을 어기고 경기 끝난 후 계속해서 이전처럼 기도하자 그에 대한 해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도 코커스(Congressional Prayer Caucus)'의 공동의장인 랜디 포브스(Randy Forbes·버지니아) 의원과 제임스 램포드(James Lankford, 오클라호마) 의원을 필두로 해 47명의 의원들은 지난 27일 브레머튼교육구 애런 리벨(Aaron Leavell) 교육감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코치의 기도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는 것을 금지한 '국교 설립 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한에서는 "이 법률 조항은 정부가 한 종교를 다른 종교에 강요하거나 한 종교를 다른 종교에 비해 더 높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종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함을 의미하

미국인 59% 할로윈 즐겨 복음주의자, 흑인들은 거부 입장 강해

미국인들의 59%가 할로윈을 재미로 즐기며 이를 전적으로 배격하는 사람은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할로윈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American Views on Halloween)>이란 주제 아래 2015년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응답자의 14%는 "할로윈의 이교적 요소를 피하면서 즐긴다"고 했고 6%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비종교인들의 경우는 무려 75%가 할로윈을 즐기고 11%가 배격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개신교인은 49%가 할로윈을 즐기며 27%가 배격한다고 답했다. 18%는 이교적 요소를 피하면서 즐긴다고 했다. 가톨릭은 71%가 할로윈을 즐기고 11%만이 배격한다고 했다. 복음주의자들의 경우는 45%만이 할로윈을 즐긴다고 했고 28%는 배격한다고 했으며 23%는 이교적 요소를 제거하고 즐긴다고 했다. 일주일에 1회 이상 예배를 드리는 경우, 할로윈을 즐긴다는 답은 44%, 배격한다는 답은 30%, 이교적 습관을 제거하고 즐긴다는 답은 20%를 차지했다. 한편, 여성의 24%가 할로윈을 전적으로 배격한다고 답해 남성의 17%에 비해 높은 수치를 드러냈으며 인종 중에는 흑인들이 할로윈을 즐긴다는 답을 한 경우가 37%로 가장 낮았고 할로윈을 배격한다는 입장은 44%로 가장 높았다. 할로윈은 미국에 이민 온 아일랜드인의 풍습에서 시작된다. 켈트족은 11월 1일 새해가 시작된다고 믿었고 1년의 끝은 10월 31일로 여겨졌다. 이날은 죽은 영혼과 귀신, 유령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믿었고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켈트족들은 유령의 의상을 입고 집을 무시무시하게 꾸몄다. 이렇게 하면 유령들이 자신을 같은 편인 줄 알고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 믿은 것이다. 이 켈트족의 풍습에 가톨릭이 11월 1일 전통적으로 지켜 오던 만상절이 결합하며 All Hallows' Eve인 10월 31일이 Halloween으로 명명됐다.

시카고 고교 "화장실 혼용" 허용되나 트랜스젠더 여학생 차별관련 진정서 제출해

미국 교육부 민권담당국(U.S. Department of Education's Office for Civil Rights)이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이 시카고 지역의 고등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관련 진정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ACLU는 이 학생을 대신해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 트랜스젠더 학생은 체육 시간이나 스포츠 활동을 위해 라커룸이 필요한데 여학생의 라커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구의 규정에 따라 불법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ACLU는 진정서를 통해 시카고 지역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화장실, 샤워실, 그리고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

김준형 기자

임정미 기자

가치있는 선택 Q water

무한 나노 에너지 산소수

최첨단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고유의 물 특성은 그대로 살리고 순수산소의 입자를 일반물보다 수백만배 이상 용해시킨 물입니다.

예로부터 물 좋은 고장 장성에서 천연 그대로 살아있는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특수한 증류 공법과 EPU(Energy Processing Unit) system, G.K Oxy(주)의 물 1ml당 200억개 이상의 산소와 수소를 고농축 시킬 수 있는 원천기술이 융합하고 무기포용해장치를 통해 물속에 산소를 완전 용해시켜 인체에 가장 유용한 산소 농도의 상태(30ppm이상)를 유지하는 전세계 유일의 나노에너지 산소수이다.

천연 그대로 살아있는 신선한 물

나노에너지 산소수 Q water는?

▶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면역력 및 면역 조절능력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높여줍니다. 병원균을 치사율에 가깝게 인공 감염 시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 검증하였습니다.

Q water를 체험한 여러 사람들이 Q water의 효능을 인정하고 애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임상실험을 통해 더욱 많은 체험 사례와 효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마시기 편합니다.

물이 부드러워, 물 마시기 어려운 환자들도 이 물만은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의 순환작용이 빨라, 마신 후 소변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 생체기능을 맞추어 줍니다.

수일 내에 변비가 없어지고 피로감을 억제하고 피를 맑게 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Quality water 나노에너지 산소수 Q water의 필요성

물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 흡수가 빨라 인체에 다량의 산소를 공급합니다. Q water는 3~4일 만에 몸이 좋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Q water를 마시면 맑은 숲 속에서 느낄 수 있듯이 머리가 맑아지고 상쾌해 집니다. 명인들의 연구결과 암, 고혈압, 당뇨, 아토피, 임산부, 수험생,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나노에너지 산소수란 일반물보다 산소가 풍부하게 녹아있는 물

최첨단 나노기술을 이용, 고유의 물 특성을 그대로 순수산소(99.9%)를 일반물보다 5~20배 용해시켜 놓은 물로, 용전산소는 인체의 건강과 수명에 커다란 영향이 있다.

산소는 물로 마셔야 효과가 더욱 좋다.

물로 마시는 산소는 호흡하는 것보다 5배 이상의 흡수효과가 있다.

주요특징

- 증류공법으로 탄생한 무한 에너지의 음료
- 다양한 분야로 적용가능하며 타제품과의 용이한 결합성
-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고속모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친환경적임
- 세포속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여 젊음을 유지
- 나노기포가 1ml당 2억개 이상 용존되어 용존량이 지속적 유지
- 나노에너지 산소수에 대한 실험 및 분석을 통한 과학적 검증

ELIM USA, INC. Tel. 213.235.7360

1201 S. State College Blvd., Fullerton, CA 92831

www.elimwater.com | www.urimul.co.kr
대리점 문의, 상담해 드립니다.

|| 아프리카 부룬디 한센인 선교

신인환(응남) 선교사 부부



아프리카 부룬디 무제마을 '미션센터' 건립에 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기쁨으로 함께 하고 있다.

선교는 “사명” 아닌 “십자가 사랑”으로 하는 것

암에 걸렸어도 다시 아프리카 한센인 곁으로 돌아갈 힘은 한센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물질을 버리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 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 전부를 온전히 바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길을 앞장서서 달려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도 감사와 기쁨으로. 신인환(응남) 선교사 부부가 바로 그들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 그리고 그 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것일까?

큰 감당해야 할 고난과 역경이 너무도 많다. '십자가 사랑'은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명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사용하실 뿐임을 체휼하게 해 주신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은 믿음을 주셔서 이 땅 시계추로부터의 자유함을 삼급으로 주신다. 그것이 신 선교사 부부가 오늘도 모든 고난과 역경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내해 나가는 힘의 원천이다.

◆ 내가 만난 하나님

신인환 선교사는 21살 군 복무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다. 철책선을 바로 눈앞에 둔 수기사 군복무 때였다. 20킬로그램 무게의 군장을 하고 10킬로미터를 뛰는 첫 행군 4.5킬로미터 지점에서 낙오한 후 중대장의 도움으로 간신히 완주한 후였다. 낙오가 있을 수 없는 군대생활, 그는 어두컴컴한 운동장에서 혼자 쪼그려 뛰기 벌을 받고 있었다. 그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신 선교사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그 때, 자기 도 모르게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하고 힘든 지역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서원 아닌 서원을 하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확히 45분이 지난 후였다. 별 받는 45분의 시간은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물론, 그 당시 신 선교사는 목회자가 될 생각도, 선교사가 무엇인지도 전혀 알 수 없었던 때였다. 그 후 그는 제대 후 10여 년간 목회를 하게 되었고, 2001년 2월 극동신문으로부터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현재는 인천방주교회(담임 박보영 목사) '젊은이교회'로부터 후원 받아 사역하고 있다.

◆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신인환 선교사는 지난 2010년 간암 수술 후, 올해 4월 또다시 갑상선암 수술을 감당하며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아프리카 부룬디 한센인들과 함께 있을 때가 오히려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며 그들에게 달려갔다. 생명이 다 하는 날까지 그 곳에서 그들을 섬기다 뼈 문기를 작정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선교는 '십자가 사랑'으로 해야

신 선교사는 간암 판정 후 죽음 앞에 서니 십자가 사랑이 더욱 더 절실히 깨달아졌다. 죽기까지, 남은 피 한방울마저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절로 깨달아졌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을 묻는 그에게 하나님은 "내게 더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되어라. 너는 나를 더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신 선교사는 선교사가 되고 보니 선교는 '사명' 받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만

◆ 아프리카 한센인 섬기게 된 소록도 한센인촌 방문

신 선교사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 받은 후 가족과 함께 소록도를 방문했다. 그때 그는 그 곳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 민족이 버린 한센인을 오스트리아 의료 선교사들이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을 통해 그는 "이 세상 내가 택한 내 백성 가운데 가난과 질병으로 가장 고통 당하며 탄식하는 백성이 바로 아프리카 한센인들이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역할 수 없는 강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그리고 미국 LA에서의 준비 기간을 거쳐 그들을 섬기러 아프리카로 들어갔다. 영문학이 전공인 아내 신응남 선교사는 LA에서 한의사 과정을 밟고 한의사가 됐다. 현재 이 한의술을 통해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모른다.

◆ 아프리카 한센인 사역

세계 전체 한센인은 약 4천만 명이다. 그 중 50%인 약 2천만 명이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다. 신 선교사는 2001년 첫 아프리카 한센인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아프리카 54개 나라 중 33개 이상의 나라를 돌며 한센인들을 돌보고 있다. 한센인병원과 촌을 방문하여 의약품과 휠체어 공급, 병원시설 지원, 한센인 생활대책 지원, 가족 지봉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현재는 가장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집중 사역하고 있다. 피난민, 고아와 과부, 그리고 한센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나라다. 신 선교사 부부는 부룬디의 수도 부중부라에서 약 4시간 거리인, 탄자니아 국경지역 무제라는 작은 시골마을에 거점을 두고 사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센인 사역(학비,



아프리카 부룬디 무제마을에 세워지고 있는 미션센터.

지붕 고쳐주기, 약, 생활지원 등), 고아사역(학비, 교복, 생활지원 등), 장애인사역(휠체어, 클러치, 교복, 학비지원 등), 현지교회사역(시멘트, 아연지붕 지원 등), 미션센터(메디컬 하우스, 게스트 하우스, 미션 하우스 등)를 건립 중에 있다. 현재 미션센터 외장은 마무리를 끝낸 상태다. 그 외 내부(게스트 하우스: 벽, 문, 천장, 페인트/메디컬 하우스: 벽, 바닥, 시멘트, 창문, 천장, 문, 유리, 페인트/미션 하우스: 바닥, 벽, 시멘트, 유리, 창문/센터 전기: 연결과 설치) 마무리, 실내 인테리어, 실내 집기(의료기구, 식당 취사기구 및 식탁, 의자, 침구류 및 모기장 등)는 후방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잘 진행될 줄로 믿는다.

◆ 미션센터의 비전

부룬디는 콩고, 차드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다. 긴 세월 식민지와 14년 내전으로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주일날에는 온 교회가 5시간 이상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영성이 살아있는 곳이다. 또한 피난민들이 많아 영어, 불어, 수아힐리, 키룬디 등의 언어를 혼용해 사용한다. 이들에게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만 심어준다면 아프리카 대륙은 물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와 민족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부룬디에는 의대와 병원이 있긴

하지만 그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여 지금도 가난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미션센터도 이곳에 세우고 있는 것이다. 현재 외장을 끝낸 미션센터는 약 1에이커 정도의 대지위에 건립되고 있다. 앞으로 그 주변의 약 3에이커 정도를 더 매입해 한방, 양방 미션메디컬 학교를 세울 계획에 있다. 미션 하우스와 게스트 하우스를 통해서도 훈련된 의료 선교사들을 서부 아프리카 모슬렘 지역 한센인촌으로 파송할 예정이다. 지난 15년 동안 아프리카 한센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의사인 신응남 선교사의 의료 치료사역 덕분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들은 다음세대의 아프리카 한센인 의료 사역을 위해 현재 UCLA 의과대학에서 공부 중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협력하는 선을 통해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가난과 한센병이라는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족속을 포함하고 있다. 신 선교사 부부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도 목숨 다해 아프리카 열도를 달려가고 있다. 후원방법은 한국) 우리은행: 계좌번호: 1002-442-377304(신응남/미국) HANMI BANK: account#: 010-699-279(Shin, In Han)이다. 이영인 기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2. 신학 대학원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3. 일반 대학교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5) ESL 과정 - 1년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4.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겨울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12월 7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opm Duplex
- Dual Scan ADF 80opm Simplex
- Emperor Drive!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Simitri with Bizness *Optional : Fax & Finisher

●이슬람 바로 알기

루터는 이슬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대학교 정문에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은 전 유럽으로 번져 나갔다.

종교개혁 498주년을 보내면서 루터가 이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슬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70년에는 3천7백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약 25만 명이다. 비공식적으로 40만 명이다.

한국에서 이슬람이 성장하는 이유는 이민이 가장 크다.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 가운데 약 20%가 무슬림이기 때문이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 한국 내 외국인 인구는 약 531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전체 인구(5,147만 명)의 약 10%가 된다. 그렇다면 무슬림은 약 100만 명이 될 것이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 이르면 한국 이슬람 인구는 약 300-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이 한국으로 밀려오고 있다. 유럽에서도 그랬다. 종교개혁이 시작될 무렵, 강력한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력이 유럽의 심장이었던 비엔나(Vienna)를 포위하였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다.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이 종교개혁의 다양한 배경을 형성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2세는 여세를 몰아 발칸 반도 안으로 유럽의 중심부를 향해 터키 제국의 경계를 넓혀 나갔는데, 1475년에는 크림반도를 탈취하였다. 이는 루터가 태어나기 불과 8년 전이었다.

나아가 1500년에는 알바니아를, 1512년에는 몰다비아를, 1516년에는 루마니아를, 1517년에는 몬테네그로를 복속시켰다. 1517년은 바로 루터가 34살의 나이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때다. 1529년에는 드디어 오토만의 군대가 비엔나를 포위하게 되었다. 1529년 비엔나에서 그 걸음을 멈추게 되기까지, 이들은 계속하여 유럽 중앙으로 전진해 들어왔던 것이다.

루터의 생애가 1483-1546년에 걸쳐 있으며 「터키에 대항한 전쟁에 대하여」와 「터키에 대항하는 군대 설교」가 1529년 작품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슬람의 도전이야말로 루터에게 심각한 자극을 주었을 것이 틀림없다. 특별히 그 때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이념적으로 고무된 폭력의 출현, 기독교와 무슬림 사이 전례 없는 수준의 자각과 접촉, 이슬람 문화 재기와 유대-기독교 문화의 붕괴 등이었다. 한국도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슬람이 밀려오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의 위협 앞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듯이 한국교회도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한다.

2. 루터의 이슬람 이해

루터는 1528년 10월 9일 「터키인의 전쟁에 관하여」라는 글을 썼다. 그 글을 통해 루터가 이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첫째, 루터는 이슬람의 침략에 대항하는 십자군을 반대하고 있다. 유럽을 정복하려는 이슬람에 대항하는 십자군을 루터가 반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기독교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이슬람 군대를 보낸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터는 이슬람을 향해 칼을 들고 벌이는 전쟁을,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여기에서 루터는 “이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 이들을 징계하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듯이, 기독교의 타락이 이슬람이라는 징계를 불러 왔다고 본 것이다.

둘째, 루터는 이슬람과의 외적 전쟁보다는 먼저 내부의 적(敵)인 “기



유해석 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독교인들의 부패와 타락”을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 외부의 적인 이슬람보다 내부의 적인 교황청이 더욱 악하다는 것이다. 교황청의 사기꾼들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이슬람 군대와 싸우도록 부추기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슬람 군대보다 내부적인 부패와 거짓과의 싸움이 우선이라고 보았다. 교황청 뿐이겠는가? 기독교인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회개가 이슬람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루터는 보았던 것이다.

셋째, 루터는 이슬람과의 전쟁은 영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군대와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확신하였다. 루터는 이슬람의 신(神)을 사탄으로 보았고, 이 영적인 전쟁은 기독교인들이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만 승리를 거둘 수 있으며, “기독교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슬람이라는 채찍을 빼앗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루터는 기독교인들이 회개와 기도로써 이슬람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넷째, 루터는 이슬람을 종말론적인 적(敵)으로 인식하였다. 1529년 이슬람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포위한 소식을 들으면서, 루터는 임박한 종말을 의식하며 이슬람을 종말론적인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터키인에 대항하는 군대 설교”에서 루터는 말세에 예언된 두 폭군을 교황과 이슬람으로 해석하고, 다니엘서 7장의 4번째이자 마지막 짐승을 로마 제국으로, 열 뿔을 제국 내의 나라들로, 그리고 뿔들 사이에 있는 “작은 뿔”을 이슬람으로 이해하였다. 교황을 “위선의 가면을 쓰고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적그리스도”로, 이슬람을 “선하고 정결한 덕목을 지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계락을 가진 적그리스도”로 이해했다.

다섯째, 이슬람과의 싸움에서 기도를 통한 영적 무장이다. 브란덴부르크 황태자 요아힘이 슐레이만 2세와의 1532년 전쟁에서 루터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을 때, 루터는 “위로의 편지(Trostbrief)”를 보내고 기

도 후원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슬람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였던 1539년 2월 말, “모든 목사에 대한 권면”이라는 글을 통해서 “목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과의 싸움에 기도로 무장할 것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톨릭교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감사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설교를 하라’고 했다.

3. 루터의 이슬람 이해에 대한 적용

루터는 이슬람에 대해 많은 연구를 통하여 높은 식견(識見)을 가지고 있었다. 1542년 아랍어에 능통한 취리히 신학자 테오도르 비블리안더(Theodore Bibliander, 1506-1564)가 꾸란의 번역을 출판하려고 할 때 바젤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히자, 루터는 비블리안더를 적극 지지했다. 루터는 “설교자가 꾸란을 읽게 되면 자신의 신앙을 더욱 견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더욱 담담하게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도록 권고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정도였다.

루터가 이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이슬람 신앙을 진지하게 평가했다.

루터는 “무슬림들의 의식과 도덕의 진지함과 철저함이 기독교인들이나 수도승·성직자들보다 더 나아서, 단지 3일 동안만 무슬림과 함께 살아도 기독교 대신 이슬람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정도로 무슬림의 도덕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루터는 이슬람의 의식이나 도덕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율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슬림으로 개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루터가 염려했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일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약 80%가 기존에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Back Sliding Christian)들이다. 따라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율법(律法)과 은혜(恩惠)의 차이를 잘 이해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한다.

루터가 이슬람의 공격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놀랍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개혁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황금만능주의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어두워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으로 이슬람이 사용되고, 그래서 이슬람이 밀려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오늘날 이슬람보다 타락한 기독교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슬람이 아니라, 기독교 내부적인 부패와 거짓이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이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서의 거룩을 위한 싸움을 우선해야 한다.

루터는 종말론적 선교 이해와 선교의 긴박성을 가지고, 종말이 오기 전에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무슬림을 대할 때 형제 사랑으로 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 이슬람 선교에서 교만한 태도는 결립돌이 되고 있다. 루터는 기독교인들의 믿음, 순종, 경건, 용기, 인내 등과 같은 덕목이 무슬림을 능가할 정도가 될 때,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할 것으로 생각했다.

최근 미국 풀러신학교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700명을 10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큰 희식 이유는 기독교인 친구들의 영적·이타적 삶이었다. 따라서 루터의 선교 전략은 현대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가 발전하고 융성했던 곳들이 이슬람으로 대체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기독교가 변질되고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때 이슬람이 몰려왔고, 그에 대항할 만한 능력을 상실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는 그 주권을 이슬람에게 내어 주고 말았다. 중동이 그랬고, 유럽이 그 길을 가고 있다. 한국에도 이슬람이 다가오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다시 개혁을 논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이슬람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을 가속화시켰던 마르틴 루터의 말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내 말은 이슬람에 대항하여 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개선하자는 것이다.”



마틴 루터.

목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사의 신앙고백입니다

“ECA에서 안수받고 장기간 사역보고를 못하였거나 목사안수를 받고도 소명이 흔들리는 목사님들의 참석을 권합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좋습니다”

이것은 복음전도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흔들리면 성도가 흔들립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자기 신앙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청지기목회자학교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대상 1.이민목회자 2.선교사 3.목사안수신청자
(신학생들은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목회현장의 숨소리를 강사들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교수 골든게이트 목회학 "교회개혁과 재정확보"	 김재영 교수 ITS 신대원 (조직신학) "복음이란"	 민승기 목사 오렌지교회 수석부회장 "이민목회란"	 이병규 목사 제물린스쿨 영어인터뷰담당 "영어인터뷰와 영어설교"
 이준성 선교사 ANC은누리교회 선교목사 "비즈니스선교와 목회"	 조섭최 목사 군목대원 "군목동 채플린사역"	 곽부환 목사 한아름제자교회 "설교자의 갈등"	 김경렬 목사 ECA 코디네이터 "목사안수와 교단"

겨울강의 12월 7~9일
소망장로교회 (성요셉 목사)
Tel(310)502-9999 반드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TEXT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내주세요)
520 S. La Fayette Pl. #505, LA, CA 90057

USCRC Pastoral Education(청지기목회자학교)
Tel(310)502-9999 • 2850 Ocean Blvd #200, Santa Monica, CA 90405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프리포즈

김양재 | 두란노 | 20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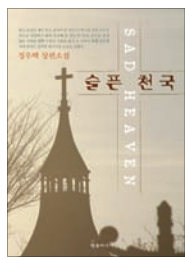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성경적·현실적 결혼 매뉴얼. 하나님께 내게 준 사랑을 놓치지 않는 신신결혼프로젝트. 이 책은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배필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내게 허락하신 만남 속에서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결혼 후 신혼 초부터 찾아오는 여러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갈지를 우리들교회에서 결혼한 커플들의 사례를 함께 실었다.



슬픈천국

정우택 | 행복미디어 | 300쪽

크리스천에게 천국은 기쁨일까 슬픈일일까? 믿음 생활 속에서 천국이 슬픔이 되는 크리스천이 교회마다 너무 많음을 보면서 저자가 던지는 질문이다. 저자는 믿음이 좋은 아내 유혜민과 믿음을 철저히 거부하는 남편 김세상의 이야기를 통해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다른지를 감동적으로 그렸다.



테블릿에서 테이블로

레너드 스위트 | 예수전도단 | 172쪽

『테블릿에서 테이블로』는 미래목회와 기독교 문화, 전도학의 거장인 레너드 스위트가 '관계와 공동체'의 영성 이야기에 대해 들려주는 책이다. 이 책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리고 역사와 문화, 철학, 사회 현상에 담긴 다양한 내러티브를 통해 상투적 종교 용어가 되어버린 '관계'와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식탁에서 만나자고 초대하신다.



거듭남과 십자가

박순용 | 생명의말씀사 | 280쪽

모두가 알고 소유해야 할 긴급한 메시지, 아무것도 새로울 게 없는 진리, 그러나 생소하고 낯설어진 주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런 질문은 때로 교인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한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잘 교제하고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 저자는 최선을 다해 기독교의 기본전리인 거듭남과 십자가, 그리고 그 전체로서의 죄와 회개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

본회퍼가 애독했던 '헤른후트 로중 기도서' 출간

286년 전부터 개신교 전통에서 가장 널리 활용돼 온 헤른후트 로중 기도서가 '말씀, 그리고 하루'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한국에 출간됐다. 55개국어로 번역돼 지구상의 많은 이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고 있는 이 기도문의 역사는 2009년판부터 번역해 여덟 번째 한국어판을 소개하게 됐다.

헤른후트(Hermhut)란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을 의미한다. 헤른후트 공동체 운동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독일의 북동부에 위치한 한 자그마한 마을에서 시작됐다. 이 운동은 니콜라우스 루드비히 폰 친첸도르프(1700-17609)에 의해 시작된 창조적인 디아코니아 공동

체운동이다. 초대교회를 지향했던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드레스덴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그의 일생을 변화시킨 모라비아교도들을 만난다. 이들은 체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1415년에 화형당한 안 후스의 후예들이었다. 친첸도르프는 이들에게 자신의 사유지를 제공하여 정착하도록 하는데, 이들은 그곳을 '헤른후트'라 칭하고 1727년경 200여 명의 모라비아 이주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다.

이들에게 아주 독특한 형식의 말씀묵상집이 전해 내려오는데, 바로 헤른후트 기도서이다. 이 기도서는 "Die Losungen(로중)"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군사적인 용어로 "암



2016말씀, 그리고 하루 헤른후트 형제단 한국디아코니아연구소 | 286쪽

구호"라고 한다. 군인이 싸우러 나갈 때 암구호는 적군과 대치 상황에서 생명과 같다. 만약에 암호를 잘못 외우거나 모르면 생명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기도서의 첫 주창자인 친첸도르프는 헤른후트 공동체원들이 매일의 삶 속 영적 투쟁에서 짧지만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말씀으로 승리할 것을 바라면서 말씀운동을 시작했다.

역사는 2007년과 2009년 여름, 헤른후트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다. 첫 방문 때 우연히 이 로중을 만드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은 필자에게 지난 300여 년 동안 매일을 위한 구약성서 구절을 준비 뽑기하여 뽑아내는 바구니를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1,800개의 숫자가 적혀 있는 제비가, 한쪽에는 번호와 성서구절이 적혀있는 문건이 있었다. 아주 인상적이었다. 300여

년 전부터 컴퓨터의 도움 없이 이러한 작업을 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 속에서 성서구절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경이로움을 자아냈다. 흥미있는 것은, 1년을 위해 뽑힌 제비는 다음 3년 동안 옆으로 놓이고, 이 기간에는 이미 뽑힌 구절은 제외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뽑힌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로중은 솔라이에르마허, 본회퍼, 코트비츠, 비헤른 등 개신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쳐 왔다. 특히 행동하는 신학자로 20세기 후반에 개신교의 신학과 실천에 큰 영향을 끼친 디트리히 본회퍼는, 헤른후트 기도서의 애독자였다. 김은애 기자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100% 천연성분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 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입니다.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칼리슈팅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칭기시는 사역과 사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책장, 편지봉투, 전문
인쇄물 및 각종 소품, 온라인주문, 온라인결제, 온라인배송 서비스로 고객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도준비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 CD, 앨범, 전도용품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품 실교시도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시디 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양공 실교시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용품, 각종 선물용, 선물용품에 구비되어 있으나 몰래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공품 및 완제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 트렌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튜닝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무료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항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노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써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골든씰 천연연황생제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영선한의원**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3달분 \$6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임신 중 튼살 방지 • 독소제거 • 관절염

• 건조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불임증(자궁축, 하혈) • 구연산 캡슐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각종보험취급**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0% APR & No Payments For 90 Day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Alex Shin Fleet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Living Out a Unique Calling in Three Contexts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Pastors, XXII: Reverend Joseph Choi

BY RACHAEL LEE

Reverend Joseph Choi is a Korean American pastor currently working three jobs: as a U.S. Army Reserves chaplain, as a hospital chaplain, and as an English ministry pastor at a local Korean immigrant church.

What does that look like in terms of schedule? Choi's full-time job is his role as a hospital chaplain at Providence Little Company of Mary Medical Center in Torrance, CA, where his weekdays are spent. As an Army Reserves chaplain, he is required to attend trainings with his unit one weekend per month, but for the three other weekends of the month, he serves as an English ministry pastor at Sanctification Presbyterian Church in Gardena.

Working three different ministerial jobs was not what Choi had initially expected for his career path. In fact, he said he initially didn't even want to be a pastor. Having grown up as a pastor's son himself, Choi was exposed to the financial hardships a pastor and his family must face from a young age, and various negative experiences in the church compelled him to decide while growing up that he would never become a pastor. But eventually, after his parents' encouragement to go into ministry, he applied -- and got accepted -- to Biola University's Talbot School of Theology.

However, even while in seminary, Choi said, it wasn't easy to shake off his negative perspective about pastors, and his lack of desire to become one himself.

"There I was, sitting in seminary, still not wanting to be a pastor. I still really didn't like pastors, and yet, there I was on my way to get an M.Div.," Choi recalled.

It was at that time that a classmate suggested he look into military chaplaincy. Considering the stable salary and benefits of working a government job, Choi felt more willing to try this alternative, and applied to be a U.S. Army Reserves chaplain in March of 2008. He began training that June.

Military chaplains could either go into active duty -- in which case, the chaplain would be deployed in various places along with his or her unit -- or into the reserves. Choi is part of the Army Reserves, meaning he is only deployed for one year at a time every five years, but is required to participate in trainings with his unit once week-end per month.

In the mid- to late-2000s, however, many soldiers were coming back home from the Middle East with traumatic experiences from the War on Terror in Iraq and Afghanistan. Choi said that at the time he became a chaplain, many were returning home with severe struggles with suicide. Military chaplains at the time were told that "we were losing more soldiers to suicide than actual combat," Choi said.

As a result, many military chaplains at the time were encouraged to take the Clinical Pastoral Education program (CPE), a program that allows individuals to become hospital chaplains and goes more in depth with mental health issues. Choi decided to apply for the CPE program, and was able to take the residency program at his current workplace, Providence Little Company of Mary Medical Center in Torrance.

"Chaplaincy is a field that I never would have considered or imagined if I hadn't enrolled in seminary and spoken with that classmate," Choi said. "I think God spoke to me and led me by literally opening the doors for me for all of these opportunities."

Chaplaincy is definitely a different setting with different challenges than that of a local church, Choi said. Being able to minister to diverse types of people as an army chaplain and as a hospital chaplain has challenged him to find a firm foundation for his own faith and to explore different ways of reaching out to non-believers.

"You're not necessarily a 'missionary' in the typical sense of the word [as a chaplain], but the environment is pluralistic -- not everyone holds to your theology," Choi explained. "I share an office [at the hospital] with Jewish, Catholic, and New Age chaplains, and a Christian chaplain who doesn't believe in hell. So being a chaplain is all about being up front in secular society but trying your best to have a Christ-like influence on the people around you."

This compelled him to pursue doctoral studies at Biola University's Talbot School of Theology to study more in depth how to be an evangelical minister in a post-modern, pluralistic society.

"Knowing what I know now, and having read the studies and books that I have, I have a much stronger foundation in my beliefs now that I wouldn't have had if it weren't for the environment that I was placed



Chaplain Joseph Choi is a U.S. Army Reserves chaplain, a hospital chaplain, and an English ministry pastor at a Korean immigrant church.

in," Choi said.

As a chaplain, both in the Army and in the hospital, Choi is not able to aggressively proselytize to the patients or the other soldiers. However, Choi says, the simple act of being present among the people and building relationships with them is a ministry in and of itself, and often opens up opportunities to be able to share God's love.

"It's called the 'ministry of presence' -- by walking into the room, I enlighten the room, if you will, with God's presence and his love," Choi explained.

He shared an experience with one particular patient in the hospital who, after over a decade of negative experiences with several churches, decided that she no longer wanted to go to church and that she would keep her faith life private and personal.

"She told me that she felt very hurt and unwelcome, and decided that Christians are hypocrites," Choi recalled.

"The natural inclination of a pastor in that situation would be to tell her that she's wrong, or to justify what happened," he continued. "But I just listened to everything that she had to say and reaffirmed her pain. And I said, 'You know, as a Christian minister who is actively engaged in the local church as a pastor, I want to tell you that I'm truly sorry on behalf of other Christians who have hurt you.' And she looked at me, and all of a sudden she started crying. She said no one had apologized to her in that way, and that she felt she was finally able to reconcile with

God through our exchange."

In such conversations as this, Choi says, he didn't explicitly share the gospel, but "if that was a seed that was planted, that was a meaningful visit."

"Just letting people know that God loves them, and planting that seed -- that's how I see my role as a chaplain," he said.

His experiences in all three of these contexts -- in the local church, the military, and the hospital -- has led Choi to become an active advocate for connecting Korean immigrant churches with Korean American chaplains to lead English ministries. He's also an active advocate for the chaplaincy field for those who are considering ministry. He has written about his experiences as a Korean American pastor and chaplain, and spoke at a seminar with a Korean audience on what chaplaincy looks like.

"I would hope that many people, even if they don't look into chaplaincy, that they would look into programs like the CPE," Choi said.

The environment of the CPE gives the students a taste of what chaplaincy is like -- listening to others' points of view, and being able to engage in meaningful dialogue despite the differences, Choi said.

"I think it's valuable training for all clergy. It's a training that allows you to push yourself to understand the other person's differing point of view, and to love that person because that person is made in God's image. Because regardless of the background, we need to love each person because we're all made in the image of God."

Korean Christians Prepare for Prayer Gathering Interceding for the U.S.

BY RACHAEL LEE

Korean church leaders are preparing to host a multi-ethnic prayer movement that will be taking place on November 29 from 4:30 to 8:30 PM at the Anaheim Convention Center called "Heal Our Land: Prayer for America's Revival and Restoration."

The upcoming prayer gathering is similar to previous prayer gatherings called "A Line in the Sand" that occurred twice on November 11 in 2011 and 2014. The goal behind "Heal Our Land" is essentially the same: to intercede for the U.S. together with members of various ethnic communities in Southern California. However, unlike "A Line in the Sand," which was spearheaded by individuals -- David Andrade and Michael Petro -- this upcoming prayer meeting is led by a group of Korean church leaders of various major organizations and councils in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including the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JAMA),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USA, and Fresh Seed -- all of which are co-sponsoring the event.

Additionally, whereas "A Line in the Sand" was an all-day event that apportioned 30-minute to an hour time blocks to leaders of specific ethnic communities, "Heal Our Land" is four hours long and time frames are organized mainly by prayer topic rather than ethnic community. Several leaders of different ethnic groups will be leading each prayer topic for three to four minutes each. Leaders will be encouraged to pray in their native tongue, and translation from each language to English, and vice versa, will be available via a conference call service during the event.

Leaders of the Arab, Russian, Vietnamese, Hispanic, and African American Christian communities have been invited to join and lead prayers, organizers of "Heal Our Land" said on Monday. However, specific plans on which leaders and churches will be participating have not yet been solidified, they added.

Though prayer meetings have taken place previously on behalf of America, this year is an especially pivotal time to pray because of the events that have happened thus far this year --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and cases of Christians facing lawsuits -- and of the elections that are upcoming in 2016, said Reverend Ezra Kang, the president of JAMA and one of the directors for Heal Our Land.

"God's up to something big, and it's up to us to pray. This could be the church's finest hour, and it should be," said Reverend Steve Davis of Redeemed and Delivered Ministries in the San Gabriel Valley. "A movement always begins with prayer, and then obedience."

"I'm humbled by the passion and zeal [of the Korean church leaders]," said Reverend Davis Hill of FireHouse of Prayer in Brea, CA. "We want to join you, I'm inviting my friends to come, and I believe a new Jesus movement is coming to California and the nation."

Organizers hope to have some 30 to 40 leaders of different ethnic communities lead prayer topics during the event. Issues such as revival in the U.S., family values, purity within the church, domestic violence, human rights, homelessness, and navigating culture will be among the topics that will be discussed and prayed over.

Higher Calling Conference to Challenge Young People to "Go Beyond" to Share the Gospel



Organizers of Higher Calling Conference hosted a press conference on October 26 at KCCC's Los Angeles office to share the details of the event.

BY RACHAEL LEE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KCCC) will be hosting its annual conference for youth and college students once again, this year from December 21 to 24 at the Town and Country Resort & Convention Center in San Diego, CA.

Higher Calling Conference, which was attended by some 1,500 last year, focuses on creating a space for young people to discover their God-given callings, and to be inspired to take part in shar-

ing the gospel in various contexts, including their homes, schools, workplaces, and overseas. Though for many years, the conference had been exclusive to college students, KCCC has been partnering more and more actively with local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since 2010 to invite their youth groups to the conference. Almost 50 percent of last year's conference attendees were youth.

"I think coming to this conference allows our youth to have a much bigger perspective on what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looks like, beyond what they see in their own local churches each Sunday," said Jacob Cho, the college pastor and youth director at New Life Vision Church. "The youth are exposed to older people -- college students -- who are passionate about the gospel through the conference, and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holy habits' from them."

"As a local church youth pastor, I would say that what is accomplished in Higher Calling Conference cannot be done by any one local church for their youth," said David Yoon, the youth pastor at Cerritos Mission Church.

Higher Calling Conference, themed "Go Beyond" this year, will feature plenary sessions with speakers such as Eugene Cho, the lead pastor of Quest Church, and Harold Kim, the lead pastor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s well as elective seminars with various topics.

The conference also features evangelism training specific to age group, as well as a youth track that allows more age-specific issues to be explored.

A distinct aspect of Higher Calling Conference is the randomly assigned small groups that allow students to share and fellowship with other students that they have never met before. Every night, these

small groups allow for a more intimate context for the students to reflect on what has been learned through all of the other program sessions throughout the day.

Though previously,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were all randomly assigned into small groups, this year, middle school students will be separately placed into small groups with their church leaders and members.

The conference, co-hosted by Holy City Movement and Nex-Gen Pastors' Fellowship, will also feature a pastors' track for youth pastors to network and learn from more seasoned pastors on how to minister to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igher Calling Conference exists not for the sake of hosting a conference, but rather to challenge young people to live with a missional perspective and to help reach the unreached," organizers stated.

"We long for the light of Jesus to shine across this nation and to lead this generation to repentance. As we lift up the glory of Jesus Christ, we believe that He will draw all people to Himself as we become the light of the world."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highercallingla.org.

“한국행 가장 싼 항공권~ 하나투어로 문의주세요” 서울 왕복 항공권 스페셜 이코노미 \$985 | 비즈니스 \$3645

★ 하나투어만의 성지순례 체험 특전 - 십자가의 길 순례체험 ★

[예수님의 걸음걸음 - 성서 속으로] 요르단/이스라엘 10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마가복음 11:11)



하나투어 기독교 성지순례는 왜 다른가요~??

- ▶ 기독교 성지순례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한 전문 상담가와 상담 및 운영
- ▶ 성지 순례상품 선택의 폭을 넓여주는 다양한 항공 이용과 합리적인 가격
- ▶ 순례자를 위한 감동 서비스! 믿을 수 있고, 안전한 현지 행사
- ▶ 성격의 이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전문 가이드 와 전문 인솔자 동행

처음 성지순례를 떠나는 순례객들에게 안성맞춤~ 구약의 핵심을 볼 수 있는 여정입니다.

[요르단] 성경의 땅

- ◆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촬영지로 유명한 新 세계 7대 불가사의 페트라 순례
 - 페트라 시크길, 엘카즈네 사원, 야외 원형극장, 수로 등
- ◆ 세례 요한의 순교지 마케루스
- ◆ 길이 1.2km에 이르는 좁은 페트라 시크길
- ◆ 엘카즈네 사원, 야외 원형극장, 왕들의 무덤, 나비티안 유적, 수로 등

[이스라엘]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그 곳. 역사와 종교가 살아 숨쉬는

- ◆ 신비로운 바다 사해에서 부영 체험
- ◆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갈릴리 순례
 - 가버나움, 베드로 수위권교회, 오병이어기적교회, 팔복교회
- ◆ 예수님이 첫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가나와 나사렛 순례
 -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
- ◆ 기독교 최고의 성지 예루살렘 순례
 - 감람산과 감람산 주변의 기념교회
 -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십자가의 길과 골고다 언덕, 예수님 무덤교회

\$2999

출발일: 2016 1/25

상기 요금은 항공 예약 및 발권 시점에 따라 요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신앙 체험의 현장에서 순례의 감동을 더해 드리겠습니다. 성지 순례도 역시 1등여행사 하나투어와 함께 하세요~



[신들의 여행 ZEUS]

하나투어가 선사하는 아프리카 여행

두바이(2박) + 아프리카 7개국 16일

겨울 시즌(12월~4월) 동물들의 이동을 보실수 있는 곳은 탄자니아의 세렝게티와 응고롱고로 뿐입니다

★ 하나투어는 세렝게티 국립공원, 응고롱고로 국립공원, 킬리만자로 트래킹 포함 입니다.★
세련된 호텔과 다양한 특식은 기본! 생생한 사파리 체험까지 내생애 특별한 여행을 선사해줄 아프리카 여행을 놓치지 마세요

\$10,500

성수기 및 연휴에는 항공요금이 인상으로 인해 상 품가변동이 있습니다.

2016년 2월 17일 (LA 출발 기준)

타사 절대 비교

- * BIG 5 사파리 게임 드라이브 관광
- * 아루샤-세렝게티 구간 경비행기 탑승 포함.
- * 잘보고 !!! 모든 여행자들의 로망, 대자연이 숨쉬는 미지의 대륙에서 동물의 왕국 여행
- * 잘먹고 !!! 지역별 현지 특식 포함 (아마초마, 선셋크루즈, 랍스터, 보마식 등등)
- * 잘 자고 !!! 전일정 4성급, 5성급 위주의 현직 최고 호텔과 롯지 숙박.
- * 전일정 사파리 전문 한국어 하나투어 인솔자 동행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이제 여행 갈때는 오직 하나만 기억하세요”

HNT 하나투어 213.736.1212

무료전화: 1.877.464.6121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www.usahanatour.com 3053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올림픽과 아드모어>

- 엘에이 본사 : 213.736.1212
- 뉴욕 직영사무소: 212.706.9177
- 라스베가스 사무소: 702.723.4977
- 하와이 직영사무소: 808.947.1212
- 한국에서 전화하실때 : 070.8224.4021



Nizmobile 해외에서 편리한 렌탈폰 서비스 이제 로밍폰보다는 렌탈폰! 선불 결제로 더욱 편리해진 니즈 모바일 렌탈폰! 한국여행이 더욱 편해집니다. 하나투어에서 렌탈가능! 시간단축! (\$60이상 Pre Pay 가능)